

‘과학 근간’



조화로운 잔류기준 절실

‘MRLs의 부조화’ 무역장벽 · 등록지연 · 소비자 신뢰 저하 초래
‘정부 · 농업인 · 작물보호 업계’ 유기적 · 소임 다해야 목표 이뤘



4년마다 열리는 IUPAC(국제 순수화
학 및 응용화학회) 농약화학 국제학술
회의가 “작물보호, 공중위생 그리고 환경안
전을 위한 발전”이라는 주제로 지난 8월 6일
부터 11일까지 일본의 전통도시인 고베에서
개최되었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2000여명의 관련자들
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는 지난 4
년간의 성과를 통한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농약산업의 미래에 대한 도전과 극복해야 할
과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한국에서는 올해 새롭게 명칭을 변경한 한
국작물보호협회를 비롯하여 관련 학계, 업계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60여명이 참석하여 논
문 및 포스터를 발표하는 등 어느 때보다 적
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제 11차 IUPAC 농약화학 국제학술회의
조직위원회 의장격인 Okawa 교수는 작물보

호기술은 혁신적이어야 하지만 혁신만으로는 향후 10년 전 세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많은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금번 IUPAC 농약화학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현재 작물보호 산업이 봉착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비약적인 진보를 이루어 내기 위한 신선한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메시지를 전하고는 IUPAC 농약화학 국제학술회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기술혁신 통해 소비자 요구 부응해야

이날 특별 연사로 초청된 듀폰의 작물보호 사업부문 James Collins 사장은 “향후 10년 작물보호분야의 도전과 기회”라는 특별강연을 통해 과거의 기술과 방법으로는 더 이상 작물보호사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화학적 방법과 유전공학적 방법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미래 농업발전을 위한 근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기술혁신이 필수적이며 과거의 기술을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회사만이 성장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또한 그는 발표를 통해 복잡한 전 세계의 규제결정 과정, 제품 재등록 일정, 테러·유가·자연재해 등의 불확실성, 에너지 가격, 미래의 식품 가격 수준,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및 유전자 조작 작물의 특질과 지역적인 확대 등을 작물보호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한 요소로 꼽았다.

일본의 유명한 천연물 전공의 농화학자인 전 동경대 겐지 모리박사는 천연물에서 유래

하는 생리활성 물질의 합성에 대해 그 동안의 성과와 그 유익성에 대해 평가하였고 미래의 작물보호도 친환경적인 요소가 반드시 구비되어야 지속 가능한 기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FAO의 작물보호 분야 책임자인 S. Pandey 박사는 현재 평균 일일 2,200kcal이하의 식품섭취로 살아가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인구가 60년대 초반에 57%에서 2000년 말경에는 10%로까지 개선되었음을 강조하며 영양결핍, 먹거리 부족, 기아와 가난 때문이라도 이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농업생산 기술개발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중국 ICAMA(Institute for the Control of Agrochemicals, Ministry of Agriculture)의 Yang 교수도 “중국의 농약관리 현황”이란 발표를 통해 현재 중국은 국제 수준에 준하는 농약 관리, 소비자 안전 및 환경보호 등과 같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전하며 중국에서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피력했다. 또한 그녀는 농업의 경제적 구조 개혁, 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의 강화, 농약산업의 성장 촉진, 지속가능한 농업의 개발 및 국제 수준의 경쟁력 확보는 현재와 미래의 농약관리 정책을 고안할 때 고려해야 하는 주요한 필요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전 세계를 주도하는 유



김 용 환
KCPA 국제위원회 위원장

제11차 IUPAC 농약화학 국제학술회의 참관기

수한 민간기업의 R&D책임자들이 별도의 포럼을 통해 각 기업의 연구개발 혁신분야와 인재관리에 대한 발표와 청중들과의 활발한 의견교환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 이채로웠다.

안전성 분야에서는 Dow의 Kenneth Racke 박사가 발표한 “식품안전성 평가와 식품잔류가 국가간 무역에 미치는 의미”에서 주요 식품 수입국간의 계속되는 MRLs의 부조화는 무역장벽과 무역에서의 골칫거리이자, 새롭고 위해성이 낮은 농약의 등록 지연 및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확신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의 방지를 위해 과학을 근간으로 한 조화로운 체계로 일원화된 식품 중 농약잔류에 대한 규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 분야는 농산물 수입 국인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볼 때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분야라고 판단된다. 이 분야는 참석자들이 높은 반응을 보인 분야로 MRL 설정 모델링에 특히 많은 관심이 있었으며 이는 소비자들의 농약안전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결과라 하겠다. 특히 농약잔류 문제에 관하여는 농약의 환경 위해성 평

가에 대한 새로운 기법이 소개되어 전문가들 간의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였으며, 그 평가방법은 국가간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되기도 하였다.

이번 회의가 전하는 메시지는 결론적으로 작물보호 산업은 더 이상 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위한 단순한 노력에만 집착 할 것이 아니라 기술혁신을 통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푸드 체인의 한 축으로서 적극 참여하여 그 기능을 다해야만 개방된 시장 하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농산물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생산 공급하고자 하는 농업 산업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접근하기 위하여는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관계당국,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인 및 환경 농업에 부응하는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작물보호 업체가 유기적인 체제 아래 그 맡은바 책임을 다해야만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함께 시사하고 있다.

제12차 IUPAC 농약화학 국제학술회의는 2010년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Y

